

어떤 날 나는 나를 길 위에 내려놓고 발로 툭 툭 차고 다닌다. 이 호젓한 쾌락. 대부분 나는 벌레다. 촉각을 곤두세워 방향을 주시한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조심히 움직인다. 더듬어 간다. 뱉는다. 그리고 결정한다.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날 내 삶의 알리바이 만들기를 그만두었다. 치열하게 될 대로 되기. 되가는 모양 지켜보기. 금욕의 화려함과 노동의 색시함. 맛보았으니 됐다. 좋았으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낯선 말-너답다.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작업하는 두 가지 유형- 일정량의 나르시시즘 이거나 자기 파괴의 가장 손쉬운 방법.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한다. 태생적 어떤 지점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 버리기 위한 고군분투. 반복되는 고군분투. 불쌍한 사랑 기계(김혜순 시집 제목)가 아니라 불쌍한 유전자 기계이다. 막걸리 마시고 혼자 춤추는 이유는?

작품: 고군분투 2009 oil on canvas 130x 162cm

